하늘고원이 숨긴 푸른 바다 青海湖



중국 칭하이성을 대표하는 청해호. 칭하이성의 지명은 청해호에서 비롯됐다. 청해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 최대의 염수호이다.

특별기획 천혜고도 칭하이성을 가다

한국불교언론 대표단(단장 진우)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칭하이성 일원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티베트 불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집자 주〉**

中 내륙 · 티베트 통로 칭하이성
한반도 3배 크기 · 인구 720만명
황하 · 양쯔 · 메콩강 水源 존재해
장족 · 회족 등 소수민족이 40%
불교 · 이슬람 · 토속신앙들 공존해

中 · 세계 최대 염수호인 '청해호'
해발 3500m에 펼쳐진 푸른바다
크기만 제주도 2배 · 둘레 360km
6대 달라이라마 열반지로 추정
곳곳에 티베트 불교 흔적 남아

중국 칭하이성=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차창 너머엔 오로지 산만이 보인다. 제법 잘 닦인 도로지만 지대가 해발 3000m에 이르다보니 약간의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지끈대는 머리에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와'라는 감탄사가 들렸다. 힘들게 눈을 떴다. 그곳엔 '푸른 바다(青海)'가 펼쳐졌다.

중국 내륙, 그것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3500m 고지에 펼쳐진 푸른 바다라니. 내가 와 있는 곳의 지명이 왜 '칭하이성(青海省)'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바로 '청해호(青海湖)'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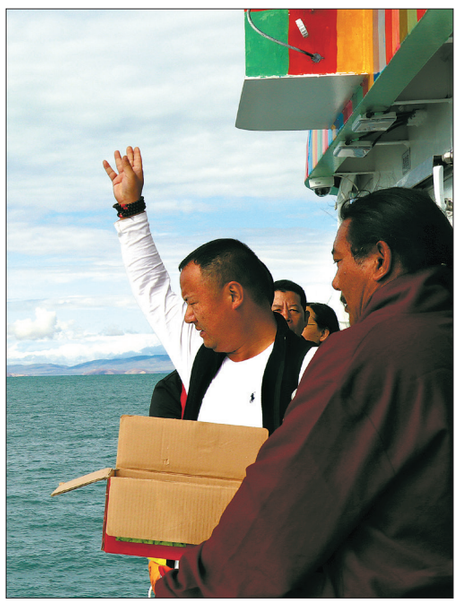
청해호는 바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 당장 중국에서는 가장 큰 호수이고 전세계에서는 가장 큰 염수호이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도 하다.

청해호의 면적은 4340㎢로 제주도(1847㎢)보다 2.3배 더 크다. 현지 가이드의 말로는 청해호에는 홍콩 4개 혹은 싱가포르 7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칭하이호 둘레는 360km로, 대략 서울에서 울산까지 거리다. 호수 둘레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360km를 라이딩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가 매년 열린다. 최근에는 중국 사이클 동호회들도 5일 동안의 코스로 라이딩을 즐긴다고 한다.

또한, 주변의 너른 땅에는 8월에도 유채꽃이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모두 개인 소유로 사진을 촬영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복장을 대여해 입을 수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호는 불교와도 연관이 있다. 청해호는 6대 달라이라마 창양갸초의 열반지로 추정된다. 창양갸초는 조금은 이색적인 달라이라마다. 4대와 더불어 티베트인 아닌 달라이라마 중 한 사람이며, 시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사랑에 대한 노래를 즐겼다고 한다. 한국에도 알려진 그의 연시가 있다.



청해호에서 만난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방생을 하고 있다.

'백학이여 내게 그대의 날개를 빌려주오. 나는 리탕으로 더 가지는 못하리니. 그러나 그곳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는 창양갸초의 사실상 열반송으로 환생을 예견한 시다. 그는 시끄러운 저잣거리와 술, 여자를 좋아했던 괴짜였다. 결국 한 몽골부족의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창양갸초를 납치 · 구금했다. 전해진 시는 구금 당시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창양갸초는 1706년 청하이성 부근서 행방불명됐다고 전해지는데 현지 가이드는 "6대 달라이라마 열반처는 청해호"라고 추정했다.

또한 칭하이성 성도(省都) 시닝(西寧)에서 청해호로 가는 길은 티베트 손첸캄포왕의 제2왕비가 된 문성공주가 시집갔던 길이다. 당 태종의 조카인 문성공주는 640년 토번(티베트)으로 시집갔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의 상징이 됐다. 현대에 와서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거론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하다.

독실한 불자였던 문성공주는 40여 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손첸캄포의 제1왕비 '브리쿠티 데비'와 함께 티베트에 불교를 소개했다고 전해진다.

차로 이동하면서도 어려움이 느껴졌을 정도인데 이역만리 시집오던 공주의 심정을 어땠을까. 하지만 전해지는 일화를 들어보면 공주는 조금은 강단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공주가 시집을 갈 때 당 태종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보라고 '일월보경(日月寶鏡)'을 하사했다. 아마 오빠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이별 선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는 토번으로 가던 도중 일월보경을 츠링산(赤嶺山)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린다. 이를 기려 후세는 산 이름을 일월산(日月山)으로 바꿨다.

공주는 왜 황제 오라버니가 준 거울을 산 아래로 던져 버렸을까. 출가외인으로서 토번국 왕비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이역만리 오랑캐에 보낸 황제 오라버니에 대한 애증과 원망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 진실은 공주만이 알 터이다.

소수민족 공존하는 칭하이성

청해호에서 지명이 비롯된 칭하이성은 중국에서 중요한 생태의 보고다. 실제 중국은 칭하이성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청해호에 가다보면 '산장위엔(三江源)' 자연보호구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下〉

B5
문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B6
학술
묵담대종사 학술대회